



충청지역
소나무

장원급제 기념하여 심은 봉황송의 소나무

✻	지정번호	청주-3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지정년도	1991		봉명동 1677
	관리기관	청주		36° 38' 41.39" N
	수령	411년		127° 27' 33.66" E
	수고	9m		
	흉고둘레	2,4m		

청주시의 봉명동은 봉황 전설과 더불어 일부 구역이 봉황을 닮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봉명 1동과 봉명 2송정동에 속하는 법정동이다. 송정동은 마을에 소나무와 정자가 있어서 유래한 지명이다. 봉황형국의 이곳은 소나무와도 관련이 많은 듯하다. 현재 어린이공원과 경로당(노인정)의 쉼터에 커다란 고목의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다. 소나무의 나이는 411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9m, 가슴높이둘레는 240cm 정도이다. 1991년에 보호수로 지정하고 온 마을의 자랑으로 삼은 나무이다. 이 소나무는 보호수 가운데 누가 언제 심은 나무인지 밝혀진 바가 드문 나무이다. 소나무가 이곳(옛날의 백봉산 자락)에 심어진 사연은 이 나무의 유래비에서 읽을 수 있다. 유래비는 2018년에 '봉명2송정동 400년생 소나무명명추진위원회'가 봉황송鳳凰松 이름을 확정하고 생일을 정하여 마을의 상징으로 보존하기로 한 내력을 담고 있다. 이 유래비에 따르면 백봉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의령 남씨 집성촌이 있었다. 이성계를 도와 개국공신 1등으로 의성군에 봉해진 남은南閔 선생이 그 가문이다. 선생의 5세손인 어모장군 남홍南鴻이

1540년에 낙향하여 이 일대에서 살았다. 세월이 흘러 12세손인 응호應浩와 응수應洙(장악원정을 지냄) 형제가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의령 남씨 집성촌이 되었다. 형인 응호는 공조판서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얼마 후 응호의 아들 대현大賢은 1618년(광해군 10)에 19세의 나이로 무관에 장원급제하였다. 응호와 응수 형제는 이런 경사스런날을 기념하여 1621년에 소나무 한 그루 심었다. 이 소나무가 봉명2송정동사무소 인근의 경로당 마당에 서 있는 봉황송이다. 또한 유래비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봉황은 새 중 으뜸이요, 백봉산 자락에서 대나무열매를 먹으며 힘차게 울었다는 전설이 있어 봉명동이니 봉황송 이름은 비단에 꽃을 엮은 격이다. 의령 남씨는 대를 이어 장원급제하였고, 고을에 인재가 그칠 없으니 봉황송 정기의 덕이다. 봉황새 울던 백봉산에서 문무를 연마하던 선현의 뜻과 400년 곳곳이 하늘을 우러러 용틀임하는 봉황송 숨은 덕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고 지혜와 덕성을 지닌 인재가 연년세세 무궁무진함을 소망한다. 도심의 이 보호수 유형은 풍치목이다. 이곳은 시민의 쉼터로 애용되고 있다.